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8. 25.(화)

지난주 방미시 미측이 호남 반도체를 거론하며 반도체 투자를 제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< 보도 내용 >

- 2026.8.25. 조선일보는 「美 호남 반도체 언급하며 “공장 지어달라” 압박」 기사에서,
 -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부터 3박4일간 대미 투자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측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와 메모리 물량 공급을 요구했다고 보도

< 산업부 입장 >

- 지난주 김정관 장관 방미시 대미 전략투자 논의 과정에서 미측이 호남 반도체를 거론하며 반도체 투자를 제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- 한·미 외교관계 등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구진경 (044-203-5650)
		담당자	서기관	김태우 (044-203-5651)
	한미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	송지현 (044-203-5170)
		담당자	사무관	유영석 (044-203-5171)
	반도체과	책임자	과 장	안홍상 (044-203-427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훈 (044-203-4273)